

지난 목요일 중보기도사역팀 정기월례회 가져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돼

중보기도사역팀의 9월 정기월례회가 지하 영아부실에서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렸다. 가을을 치닫고 있는 코스모스의 한들거리고 파란하늘은 중보기도 사역팀 월례회를 찬양하듯 한들거리고 오랫동안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로 모임은 이내 상기되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정영환 목사의 인도로 모인 32명의 중보기도 사역팀은 기쁜 마음으로 9월 정기 월례회 모임을 시작했다. 정영환 목사는 이 모임을 통해 마가복음 1장 9~13 절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잠깐의 방학을 끝낸 뒤 새로운 마음으로 2학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2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한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도 아니고, 두려워하기 때문도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때문에 사역해야 한다. 그 마음이 바로 지금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의 중보기도 사역은 평탄한 길이거나 영광스러운 길은 아니다. 우리의 길은 광야와 같은 시험이 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천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사역을 계속하기위하여 광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만나야 사역은 하기가 쉬워진다. 환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며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신다. (2면에서 계속)

구역 이끄미 첫 모임 가져



9월 7일 수요일예배 후에 구역이끄미 가을학기 첫 모임을 가졌다. 2학기부터 구역예배 체제가 새롭게 바뀌게 된다. 구역교재를 교회에서 정해준 몇 가지 추천 교재 가운데서 구역장(섬기미)이 직접 선정하여 한 학기를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게 된다. 각구역의 필요와 상황에 적합한 교재를 구역장(섬기미)이 구역원들과 함께 선택하고 구역원 수만큼 일괄 구입하게 된다. 추천 교재는 총 7가지 종류인데 교재마다 여러 소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로는 교제, 전도, 성장, 예배, 복음, 기도, 용서, 하나님의 임재 등 다양한 신앙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각 구역의 형편에 적합한 교재를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잘 살펴보고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구역원들이 선정한 교재를 한 학기동안 활발하게 구역 안에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삶속에 깊이있게 적용시켜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역모임을 통해 한 단계 더 신앙이 성숙해질것을 기대한다. 또 한가지 새롭게 바뀐 점은 그동안 전체 교구가 함께 모이던 구역 이끄미 모임을 2학기부터는 교구별로 교구 목회자가 이끄미모임을 교구에 따라 인도하게 된다. 2학기에는 더욱더 교구별로 그리고 구역별로 다양한 색깔과 특성들을 보이면서 함께 아름다운 영적 무지개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2학기에 새롭게 시작되는 구역 모임에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통한 영적 유익을 기대한다.

2005년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은 1992년에 중동에서 몇 명의 기독교 사역자들의 작은 모임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이 운동에는 2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크리스천들이 전 세계에서 참여하고 있다. 당시에 그들은 가능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했는데 때마침 이슬람의 라마단 기도 기간과 맞물리게 되었다. 라마단이란 이슬람력에 따라 라마단 월에 행해지는 무슬림의 금식 기도를 말한다. 라마단 기간은 매년 조금씩 변동되는데, 2005년에는 10월5일부터 11월3

일까지이다. 초승달이 떠오를 때 시작하는 라마단 금식이 30일 후 다시 초승달이 떠오르면 끝나게 되는 것이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을 라마단 기간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은 무슬림의 기도와 금식을 본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매년 일정한 기간에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1년 중 무슬림이 가장 신앙생활에 중점을 두는 기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간구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한 끼, 또는 더 오래 금식함으로 무슬림을 위한 기도의 헌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무슬림들처럼 라마단을 지킬 것을 제안하지 않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슬림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슬림이 구원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슬림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 무슬림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 (문의 :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본부, 02-322-0682).

여선교회 연합예배



여선교회연합예배가 9월1일 목요일 오전10시30분 찬양연습실에서 있었다. 제1여선교회부터 제6여선교회에 속하는 집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렸다. 이호목사는 「약한자여 기도하라(마7:7-8)」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땅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문제로부터 자유한자는 아무도 없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염려가 아닌 기쁨과 평강으로 헤쳐 나감은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2면에서 계속)

9월 5일부터 청년새벽부흥 시작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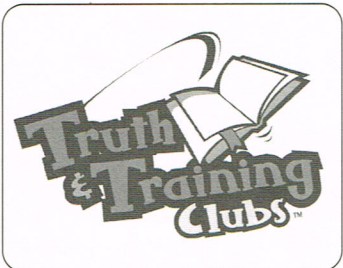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부터 7시까지 청년부에서 주최하는 새벽부흥기도모임이 지난주 월요일(5일) 오전 6시 15분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새벽부흥기도모임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으로 8월 29일부터 시작된 한주간의 기도모임에 매일 40여명의 청년들이 꾸준히 참여하여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기도 시간을 통해 가졌다.

현시대 인터넷과 휴대폰을 기반으로 형성된 청년들의 문화적 특성이 밤낮의 구분과 정확한 약속 문화를 정착시키기 어려울 만큼 무질서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직장 생활까지 방해할 정도일 뿐 아니라, 영적 성숙의 길에도 큰 걸림돌이 되는 현실이다. 청년부에서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부르셔서 이 시대의 새벽을 여는 사명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적 부르심과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신앙적 확신의 부재로 말미암은 영적

방황에 종지부를 찍고 영적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는 새벽부흥기도회를 시작한다. 새벽은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청년들은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시작하며 날마다 자신의 직장, 학교와 가정으로 섬기기 위해 파송 받게 될 것이다.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자신들의 자녀를 아침마다 축복하는 영적 특권을 누리시기를 강권한다.

AWANA T&T(Truth & Training)Club

리더를 모집해



주님의교회 어와나 클럽은 2006년도 3월에 T & T 클럽을 오픈할 예정이다. T & T 클럽이란, 초등학교 3~6학년 아이들을 위

한 어와나클럽으로서, 한창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며,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와 군사로서 훈련시키는 클럽이다.

Truth & Training 라는 이름은 3학년부터 6학년의 소년, 소녀들의 열정을 반영하는 말로써, Truth는 하나님의 말씀을, Training은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훈련을 말한다. 우리의 목표는 오늘의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의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T & T는 오늘의 젊은이들을 미래의 지도자들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다.

T & T 프로그램 소개

■ 하나님의 말씀에 호기심과 흥미를 얻게 하기 위한 활동들

T & T는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도구들로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와 기대를 가지게 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이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게 한다. 매주의 만남은 아이들을 복음 메시지, 성경 암송, 성경 연구, 시상, 팀 게임, 즐거움 등을 접하게 한다. 성경중심의 커리큘럼은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견고히 기초를 세우게 도와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의 삶 속에 성경 말씀의 진리를 적용케 한다. 복음주의와 훈련은 3학년부터 6학년의 프로그램에 협력하여 가게 한다. 아이들은 T&T를 완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목표에 다다르게 된다.

- * 310개의 성경 구절을 배우고 복습한다.
- *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수십 장을 공부한다.
- * 정기적으로 복음 메시지를 듣고 읽는다.
- *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와 같은 질문에 대해 성경의 답을 발견하고 이러한 대답에 대한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
- *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짐으로

써 바로 지금,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다.

* 선교 과제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준다.

주님의 교회 T & T 클럽은 우리교회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 활짝 열려있는 클럽이다. 우리는 이 클럽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복된 소식을 듣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의 아이들이 성경말씀을 단순한 이야기로 기억 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주님의교회 AWANA 클럽은 이 일에 함께 자원하여 동참할 리더들을 모집하고 있다. 천하의 그 무엇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며 가장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이 사역에 한 부르심의 소망과 비전을 품고 봉사할 교사들을 모집한다. 때가 악하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 이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드리며 헌신하고 희생할 리더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 자원봉사 신청 방법 : 자원봉사 데스크에서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 접수.

* 문의 : 유영안 전도사 (011-9040-9809)

(1면에 이어서)

지난 목요일 중보기도팀 월례회 가져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기도하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동기와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사역자들에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더욱더 간절하고 뜨겁게 말씀 후 함께 기도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휴식기간이 지나고 지난 토요일에 있던 정기당회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붙들어주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주시길 앞서 기도했다.

또한 이번 주부터 개강되는 2학기 양육클래스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있게 양육되고 세워지도록 그리고 2학기 구역예배가 다시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구역들이 되도록 함께 중보했다. 또한 이번 미국 카트리나 재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다. 합심 기도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

며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재해를 당한 이들과 태풍 '나비' 때문에 고통 당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찬양했다. 월례회후 2부 순서에는 팀별로 모여 손을 잡고 작은 모임 속에서 함께 나눈 공통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하며 서로 팀원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1면에 이어서)

여선교회 연합예배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 한다고 했다. 또한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고 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않고 기도 하고 계신다는 말에 위로가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끼리는 감사꺼리이며 기도꺼리이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합예배 후에는 각 여선교회별로 모여 방학동안 각 가정의 근황을

서로 묻고, 2학기 여선교회 계획을 나누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여선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여선교회 연합예배를 마쳤다.

오늘 기도



2005.9.11

인적 성경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005년 2학기 양육클래스안내(기간:9월11일~12월9일)

열매맺는 삶을 위하여

100과정

새가족모임 (101필수)

시간: 주일 오전 10:30, 오후 12:30 / 강사: 새가족사역팀

주님의교회 새가족이 되신 분들을 위한 성경공부 과정으로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셔야 할 모임입니다.

200과정

제자의 삶 (201필수)

시간 및 강사: 주일 오후 1:30 / 강사: 정영환목사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삶의 변화를 위한 양육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드립니다. 필수과정으로 주님의교회 교인이라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선교이야기 (217)

시간: 주일 오후 1:30 / 강사: 손영익, 변춘석, 이현식집사

선교의 현장에 찾아가서 치과의사로서 의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온 세 집사님들의 생생한 선교의 현장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대를 향한 메시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사진학교 (221)

시간: 주일 오후 1:30 / 강사: 임근원집사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교수인 임근원집사와 함께 사진에 대한 기초지식과 전문지식을 배우고 실습도 해보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몽골성경과 몽골이야기 (218)

시간: 주일 오후 1시 / 강사: 체벨레 자매

한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이후 몽골 10대 대학으로 성장한 울람바타르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대에 편입해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체벨레(현 주님의교회 고등부 교사)자매와 함께 몽골에 대해 알아보고 몽골 선교역사와 몽골성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편지 (요한서신연구) (206-D)

시간: 화요일 오전 10:30 / 강사: 이인호목사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세레나데, 곧 사랑의 노래이며 편지입니다. 특히 요한서신은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며, 가치있게 하며, 아름답게 합니다.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 사랑을 듣고 보며 손으로 만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연구 (206-E)

시간: 화요일 오전 10:30 / 강사: 정희성목사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내일을 기억하는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소선지서강해) (206-F)

시간: 화요일 오전 10:30 / 강사: 홍민기목사

소선지서를 함께 읽으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서예 (222)

시간: 화요일 오후 2시 / 강사: 박재현집사

서예가 박재현집사와 함께 서예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는 매우 유익한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06-B)

시간: 목요일 오전 10:30 / 강사: 김현령목사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공부함으로써 사도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 메시지들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건강 (210)

시간: 목요일 오후 7시 / 강사: 김광일집사

연세유엔김신경정신과 원장이며 연세의대 정신과학교실 외래교수인 김광일

“가치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집사에게 배우는 크리스찬 정신 건강학입니다. 전인적 건강생활을 유지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찬양과경배로 승리하는삶 (215)

시간: 목요일 오전 10:30 / 강사: 윤은성목사

찬양과 경배를 통한 성경 묵상과 공부 그리고 실제적인 찬양 시간을 통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실제적인 삶의 승리를 누리는 삶을 위한 찬양과 경배의 훈련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과 다윗의 장막 (사도행전연구) (206-C)

시간: 목요일 오전 10:30 / 강사: 박의일목사

사도행전을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서, 특히 15장 16절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의 의미를 상고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찾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복음서연구 (206-A)

시간: 금요일 오전 10:30 / 강사: 이 호목사

공관복음서를 함께 읽어가며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고 영적 성숙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영어성경공부(ACTS) (213)

시간: 금요일 오전 10:30 / 강사: 나현수전도사

UC Berkeley 출신인 나현수전도사와 함께하는 영어성경공부는 성도여러분에게 영어공부와 함께 새로운 느낌의 성경공부를 경험하도록 할 것입니다. "We will study how God loves to work powerfully through His people."

일본어성경 (219)

시간: 금요일 오전 10:30 / 강사: 신영숙집사, 이시야마 유리

(연세어학당 일본어강사, 현 미8군 내 메릴랜드대학 일본어강사, 일본어학교 강사) 일본어를 모르는 분들도 부담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본어 강좌입니다. 일본어와 함께 일본어 성경도 배우고 일본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나의 성지를 찾아서 (206-G)

시간: 금요일 오전 10:30 / 강사: 이창현목사

이스라엘 역사와 지리를 공부하면서 성지순례를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지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륜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06년 1월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그리스 성지순례예정)

300과정

리더훈련(귀납적 성경연구와 소그룹인도법) (301필수)

시간 및 강사: 주 일 오후 1:30 / 강사: 김성관목사

목요일 오전 10시 / 강사: 우동운목사

성경을 귀납적으로 읽는 방법과 소그룹을 인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구역장이나 기타 소그룹성경공부를 인도하는 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제자의 삶을 수료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학교 (305)

시간: 주일 오후 1:30 / 강사: 권순영집사

목요모임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권순영집사는 90년 예수전도단 Be-E DTS훈련을 마친후 93년부터 96년까지 러시아 코스트로바 도시건설 책임자로 있으면서 현장에서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하였고 이후로도 세계선교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해왔습니다. 함께 선교의 비전을 품어봅시다.

중보기도세미나 (304)

일자: 미정(1박 2일) / 강사: 정영환목사

중보기도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1박 2일 집중세미나입니다.

※ 양육신청서(별지)에 원하시는 과목을 적으셔서 사무실이나 1층 로비의 안내데스크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목의 시간에 오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9월 한 달간 신청 가능합니다.

주님의교회양육사역팀 Tel. 416-5181

문의: 김원중장로(017-216-3372) 노봉옥권사(011-226-0464) 김성관목사(011-9184-6309)

유소년축구클럽 다시 오픈해

제5기 유소년축구클럽이 다시 개강했다. 이번 학기는 9월 4일부터 11월 27일 까지 총 12주(추석주간제외) 동안 교육이 이루어진다. 총 120명의 아이들이 등록을 했고, 유치부는 4기에 처음으로 개설되어 이번 학기에는 배가 늘어난 아이들이 등록을 해서 유치부의 호응이 매우 좋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학기에는 2조, 3조 축구교사가 새로 아이들도 방학 기간이 길게 느껴졌는지 매우 즐거워하고 활기차 보였다. 아이들이 아무 사고 없이 운동장에서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교우들의 도움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

운동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1시 20분 이전까지 차를 이동시켜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차를 피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고 차에 부딪혀 부상을 입을 수 있기에 협조가 필요하다.

1시 30분 이후에는 운동장은 주차장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란다.



레인보우, Church Camp

레인보우는 8월 21일 토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1박2일 동안 Church Camp를 가졌다. 여름수련회 일정중 하나로 계획된 이번 캠프에서는 "관계"라는 주제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행사 프로그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되어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했다. 사탕 찾아오기, 이쑤시개 멀리 던지기, 박터트리기 등의 게임을 하고 밤이 오자 교사들이 준비한 폭죽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 외에 보드게임과 애니매이션도 보았다. 주일 아침시간 서로에게 쪽지를 써서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 보내어 서로 친밀해 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만났으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친구들과 친해지며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 더욱 값진 시간이 되었다.

레인보우의 특징이라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이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점인데 이번 캠프를 하는 동안 1학년 동생이 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6학년 형들이 도와주는 모습도 보여주어 아름다웠다. 캠프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9월을 맞아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무지개처럼 희망의 힘찬 새출발이 있는 한 학기가 되기를 기도한다.

청년부 2005 여름 단기 선교(중국팀)

우리는 선교준비(기도회와 선교학교 헌신예배)를 통해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중국을 품게 하시고 영적 무장을 하여 승리를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인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긴밀하게 만나고 영적 리더자가 되어 섬기게 하셨습니다.

기대감과 중보자의 마음으로 중국을 향했습니다.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동쪽으로 향하는 복음의 물결 시작점인 서안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회족의 중심지인 청진대사와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기도했던 삼장법사의 대안탑 그리고 많은 비석이 존재하는 비림 박물관을 보면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그 배후인 사단이 물리

가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차와 버스를 타고 란주를 걸쳐 라블랑스로 향한 우리들은 드넓은 평원을 바라보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수많은 모스크와 사원, 절 등이 무너져라고 우리는 기도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

해 항상 깨어있었습니다. 우리가 더욱 뜨거워질 때마다 사단의 공격은 심해졌으나 우리는 나사렛 예수이름으로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회를 허락하셔서 뜨거운 눈물로 아버지께 구하고 찬양하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또 지체들을 통하여 주님 역사 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른 아침 라블랑스를 돌면서 오체투지와 경전통을 돌리는 그들을 보면서 단순한 행위가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안타까워하면서 참된 구원자이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자로서 나는 어떤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행위로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형식적인 예배자는 아닌지 주님께 아뢰었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매순간마다 깨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살아있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또 그 땅에 선교사님께서 많이 파송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서안으로 돌아온 우리는 서북 성경학교라는 곳에서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고 그곳을 평생 지키셨고 오직 주 예수만 찬양하며 주 영광 위해 사셨습니다. 그분들과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며 주님을 찬양하니 감사하고 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는 이 땅은 반드시 열리고 주님나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들 또한 쉬지 않고 중보해야 하루 빨리 이 땅이 열리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팀원들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을 그리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역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입술은 감사함으로 가득차고 중보 하는 기도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믿고 있는지 알게 하였고 예배자로서 더욱 신실하게 변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청년공동체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사랑이 그대로 전해져 우리 안에도 동일한 마음이 품어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